



웰빙 단호박 떡 만들기

강진군 농업기술센터가 지난 28일 개설한 '2007 여성생활교육' 수강생들이 단호박 떡 케익을 만들고 있다. 이번 교육은 매주 수요일 오후 2시간씩 5회에 걸쳐 열린다. /강진=이병철기자 mood@

주한미군 평택기지 건설 6조원대 물자 광양항 통해 반입될 듯

美, 기초조사 착수...유치편 CSI 항만 지정 가능성

평택 주한 미군기지 건설에 필요한 6조원 대 물자수송이 광양항을 통해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 항만 활성화에 청신호가 켜졌다.

주한 미군은 최근 평택기지 건설에 필요한 각종 물자를 국내로 반입할 항만을 선정하기 위해 광양항 등에 대한 기초조사 작업에 착수했다.

특히 이달 초 장성급이 포함된 미군 관계자들이 웰기로 광양항을 둘러보고 물자반입에 따른 타당성을 검토한 것으로 확인됐다.

광양항은 부산항 등 여타 국내 항만에 비해 물류비용이 저렴해 내다보안과 안전성 측면에서도 주한 미군측의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따라 빠르면 오는 6·7월께 미

군 화물을 실은 수백개의 컨테이너가 광양항을 통해 국내에 반입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광양항이 미군화물을 유치할 경우 미 관세청에 의해 CSI(컨테이너 보안협정) 항만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와관련 최근 백옥인 광양만경 경제자유구역청장이 미군기지 건설물자 물동량 유지를 위해 미군해군수송사령부를 방문하기도 했다.

백옥인 광양만경경제자유구역청장은 "앞으로 CSI 항만으로 지정되지 않을 경우 미국으로의 컨테이너 수송이 불가능하다"며 "미군화물 유치를 CSI항만 지정에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년전 미군 정비창 광양이전을 받

▲CSI 항만이란=9·11테러이후 화물 검역을 강화하기 위해 미 관세청이 만든 제도. CSI(Container Security Initiative·컨테이너 보안협정)를 맺은 항만에 미국 세관원이 파견돼 사전에 화물을 검색하게 된다. 오는 2010년부터는 CSI 항만을 통해서만 미국으로 화물을 수송할 수 있다. 현재 전 세계 50개 항만이 지정돼 있으며 국내에서는 부산항이 유일하다.

대했던 지역 시민사회단체들도 이번에는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어 미군화물의 광양항 이용이 성사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광양=김춘호기자 chkim@



서울 청계천에 '산수유 거리' 조성

구례군, 표지석·안내판도 세워

서울 청계천 하류인 마장동에 '산수유 향토수목 거리'가 조성됐다.

구례군은 특산물인 산수유를 널리 홍보하기 위해 청계천에 '산수유 거리'를 조성, 지난 28일 준공식을 가졌다.

이날 준공식에는 서기동 구례군수, 최성욱 구례군의회의장, 강금영 재경 구례향우회장을 비롯 구례 군민과 향우 100여 명이 참석했다.

'산수유 거리'는 청계천 하류의 신답 철교와 마장교 사이 지하철 2호선인 신답 전철역 건너편에 위치해 있다. 구례군은 이곳에 직경 20~30

cm 가량의 70~80년생 산수유 나무 31그루를 200여m에 걸쳐 식재했다.

또한 '생명과 봄의 시작, 지리산 산수유길'이라고 새긴 높이 0.8m, 폭 1.9m의 표지석과 안내판 등을 세워 구례 산수유를 소개하고 있다.

서기동 군수는 "구례 산수유가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떠오르고 있는 청계천에 뿌리를 내린 것은 매우 뜻 깊은 일"이라며 "서울 시민들에게 전국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는 구례 산수유를 알리는데 효과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구례=김동호기자 dhkim@

'관광지 순환버스' 본격 운행

전남도, 12개 노선 12대 투입... '시티 투어'와 연계

전남도내 주요 관광지를 순회하는 '관광지 순환버스'가 지난 29일 운행을 시작했다.

도내 주요 관광지를 경유하는 '관광지 순환버스'는 운행 첫 해인 올해 12개 노선에 대형 버스 12대가 투입되고 내년부터 20대 규모로 확대되는 등 관광수요에 맞춰 탄력적으로 운행된다.

'관광지 순환버스'는 또 목포와 순천 등 일부 시·군에서 운행되고 있는

'시티 투어(City Tour)'와 상호 연계, 운행됨으로써 전남지역 곳곳에 흩어져 있는 관광명소를 손쉽게 둘러볼 수 있는 효율적인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관광지 순환버스 이용객에게 발매하는 '전남관광카드'는 충전과 환불이 자유롭고,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서 통용되는 '이비' 교통카드와도 호환이 가능하다.

도는 '관광지 순환버스'를 운영을

계기로 전남을 찾는 외래 관광객 증가는 물론 주로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한 기존 관광객 패턴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동화 전남도 건설재난관리국장은 "각종 홍보와 제도적인 보안을 통해 '관광지 순환버스' 운영을 조기에 활성화하는 데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홍행기자 redplane@kwangju.co.kr

완도군, '행정서비스' 우수기관 선정

완도군이 행정자치부에서 실시한 '2006 행정서비스 현장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우수기관 현장마크와 기관표창을 받게 됐다.

완도군은 이번 평가에서 ▲업무 시작전 민원인을 위한 친절 방송실시 ▲도서관을 위한 희망 e-다터 화상진료시스템 구축 ▲섬마을 야간응급실 운영 ▲12개 분야 행정 서비스 현장 제정 등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

김종식 군수(사진)는 "주민이 만족



상황 알림제 운영 등 다양한 시책을 개발, 주민과 함께 하는 봉사행정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완도=정은조기자 ejchung@

하는 행정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며 "앞으로도 민원인 안내 도우미제 및 민원처리

보성군 웅치면도 '사랑의 쌀 뒤풀' 운영

보성군 웅치면이 독거노인과 소년소녀 가장 등 생활이 어려운 주민들을 위한 '사랑의 쌀 뒤풀'을 운영하고 있다.

웅치면사무소는 지난 26일 사무실 현관 앞에 사랑의 쌀 뒤풀을 설치했다. 웅치면사무소는 앞으로 쌀 뒤풀을 이용하기 힘들 정도로 거동이 불편한 이웃들에게는 직원들이 직접 쌀

을 전달할 계획이다. 한편 웅치면 봉산리 안유복(57)씨가 80kg 쌀 1가마를 기탁하는 등 벌써부터 독지가들의 지원이 잇따르고 있다.

고재운 면장은 "이웃사랑의 작은 불씨가 되살아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사랑의 뒤풀 사업을 시작하게 됐다"고 말했다. /보성=안규일기자 giahn@



장흥초등학교 본관건물 새 단장

민간참여 BTL 방식 건설

100여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장흥초등학교 본관건물이 민간업체참여 방식인 BTL사업으로 새롭게 단장됐다.

지난해 6월 구분관 건물을 철거하고 착공한 장흥초교 본관 신축공사는 총 26억9천만원의 들여 지상 3층 연건평 850평(23개 교실) 규모로 지난 2월 말 최종 공사를 마치고 지난 27일 준공식을 가졌다. 신축 본관건물은 방·난방 시설을

비롯 세입증후권을 방지하고 실내 공기를 쾌적한 상태로 유지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주)우미건설은 오는 2020년까지 전남도 교육청으로 부터 건축비를 상환받는 조건으로 이번 공사를 맡았다.

한편 지난 1905년 개교한 장흥초교는 지난해까지 1만8천900여명의 졸업생을 배출했으며 현재 43학급에 1천270여명이 재학하고 있다. /장흥=김용기기자 kykim@

신행인내 (New People's Column) section containing various news items and community updates.

Local news and advertisements section, including 'Party Food' and 'CCTV' ads.

Large advertisement section featuring multiple business ads, including 'Party Food', 'CCTV', and various service providers.